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7호 2026년 10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김포'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국적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나누는 세계 문화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최영일)와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10월 11일 제19회 김포 세계인 큰잔치를 김포아트빌리지 일원에서 진행했다. '세계로 열린 김포, 평화로 잇는 우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음식,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과 공예, 놀이를 한 번에 만나는 문화 교류의 장을 펼쳤다. 송하성 기자

'체류자격·자금출처까지'...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해외에서 가져온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상가 등 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 840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6년 8월 시작됐으며 12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자세히 확인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어디에서 돈을 마련했는지를 이전보다 자세하게 확인한다. 2026년 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를 팔아 마련한 자금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 종류) 등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조사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사 대상도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이 신고한 부동산 구입 자금이 실제 자금 출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조사 2022년부터 실시

정부는 외국인이 매우 비싼 주택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됐거나 법을 위반해 투기에 이용되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아무쪼록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어 5면, 베트남어 5면, 러시아어 29면, 영어 23면〉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용인 11~13 구리 14~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광명 22~25 이천 26~27 평택 28~32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 中文 5, 2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2 러시아어 Русский 12, 27, 29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5, 16 영어(English) 18, 23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7, 8, 25 나의 학습 My Study 6, 17, 30 이주배경청소년 4, 10, 24 보건 Health 3 도서관 Library 2, 3, 11 국제교류 9, 13 육아 16 행사 Event 27 동포 12 1인가구 19 여가 Leisure 15, 18, 27, 29 부동산 Real Estate 1, 5, 23, 29 복지 Welfare 12, 16 유학생 24 외국인근로자 3, 4, 13 세금 Tax 14 인터뷰 Interview 22, 23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민 행정의 지역화, 경기도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도내 이민·다문화 정책 관계자와 이민 관련 학회 임원진, 이주민 지원 관계 기관,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등록외국인의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주민 규모가 크고 다양성 있는 경기도는 이민 행정의 중앙 집권적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민정책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기조 발제는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윤 교수는 이민 행정 지역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맡아야 할 핵심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 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 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이민영 한국다문화복지학회 명예회장 등 대한민국 5대 이민·다문화 학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담은 지역 이민 행정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과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이민행정의 체계화는 21세기형 선진 국가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민 행정의 지역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자임해야 하는 리더십과 역할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공공도서관 '도서관 AI 배움터'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서관에서 '도서관 인공지능(AI) 배움터' 출범식을 열고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AI, 도서관에서 함께 합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도서관 AI 배움터'는 도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공공도서관을 AI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 AI디지털배움터' 사업과 시군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프로젝트다. AI 전문 강사로 구성된 멘토단이 오는 12월까지 도내 20개 시군 65개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며 이용자 맞춤형 AI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시민,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대상별 수준에 맞춰 운영된다. 생성형 AI 활용법을 비롯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쉽고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세부 일정과 교육 내용은 각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AI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기술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박은경 의원, "안산 다문화교육 특성 살리고, 이주배경 학생 지원 내실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안산1교(가칭) 건립 추진 현황과 경기한국랭귀지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안산1교의 학생 선발계획과 특성화 교육과정, 교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한국랭귀지스쿨의 운영 현황 등이 논의됐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안산1교의 학생 선발계획과 관련해 일반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배경을 확인하고, 학교 설립 취지인 다문화 특성화 교육의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인 만큼,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교육 수요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 선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어울림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교육에 특성화된 학교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해 학생 구성과 선발 기준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지역별 이주배경 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학교 설립 취지가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집중교육과 이중언어 교육,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과학습과 상급학교 진학,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도에 위치한 학교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수 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배치와 근무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한국랭귀지스쿨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 내 한국어 특별학급과 외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방식, 학생별 학습기간, 교육성과 평가체계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어 특별학급은 도내 119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산에는 31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의 출신 국가와 언어 수준이 다양한 만큼,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폈다.

아울러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문성 검증, 교육 효과성 평가방식 등을 질의하며, 위탁기관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을 기억해요

팔색조·한마음·고운손 봉사단, 바자회 수익금 기부

수원시 관내 봉사단체인 팔색조·한마음·고운손 봉사단이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을 "수원시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수원시에 기탁했다.

수원시는 기부금을 중앙복지재단에 지정기탁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 긴급지원 상담자와 재수원교민회 추천 대상자 중 저소득 다문화가정 4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6일 수원시청 여성가족국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김공순 한마음봉사단 회장, 김동우 팔색조봉사단 회장, 이재숙 고운손봉사단 회장,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공순 한마음봉사단 회장은 세 봉사단을 대표해 "축제에서 얻은 수익금을 다문화가정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 봉사단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세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되도록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베트남 유학생, 문화 나누며 교류의 시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대 베트남학생회와 함께 진행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24일, 아주대학교 인근 새벽카페에서 경기대학교 베트남학생회와 함께 '베트남 유학생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의 추석 문화를 나누고, 서로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40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장기자랑을 비롯해 베트남의 추석과 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 맞히기, 몸으로 단어 표현하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익숙한 고향의 문화를 활용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웃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여가 활동을 넘어,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고 같은 고향을 가진 친구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에서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고향의 문화를 나누는 동안 학생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고향의 문화를 함께 나누고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광교홍재도서관, 온라인 강연 '발칸유럽 역사문화기행' 모집

수원시 광교홍재도서관이 '발칸 유럽 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성인 80명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광교홍재도서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인문한국플러스(HK+) 국가전략사업단 '똘레랑스'가 협력해 운영하는 '2026년 세계문화기행'의 두 번째 강좌다.

강의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화상회의 온라인 체제 기반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한국외대·울산대 교수진이 ▲슬로베니아·보스니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역사와 종교, 예술, 생활 문화를 소개한다. 서유럽·동유럽·근동문화가 어우러진 발칸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도 살펴본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www.suwonlib.go.kr/reserve/index.do)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발칸 유럽 역사문화기행'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광교홍재도서관 관계자는 "발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유럽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는 강좌"라며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인문학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특례시,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70세 이상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12일부터, 65~69세 어르신(195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자)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접종한다. 접종 기간은 모두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접종 백신은 모더나·화이자사의 엑스에프지(XFG) 백신이다. 일반 고위험군은 연 1회, 면역저하자는 연 2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방문해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관리→위탁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이주민 교육환경 개선 위한 후원!

재수원교민회연합,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전달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재수원교민회연합으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칠판 구입비를 후원받아, 2026년 10월 10일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수원교민회연합은 이날 전자칠판 구입을 위한 후원금 3,395,000원을 수원외복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센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민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수원교민회는 수원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동시에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체다. 각국 교민회는 명절 및 국경일 기념 행사, 문화 교류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후원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총 12개국 교민회가 함께 뜻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여러 국가의 교민회가 이주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이번 후원은 국적과 문화를 넘어 상호 존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됐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주민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재수원교민회연합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이주민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우리동네 도서관서 즐기는 가족축제

한림도서관, '도서관 사계-가을 축제'



수원시 한림도서관이 10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서관 강당과 앞마당, 한림홀에서 '도서관 사계-가을 축제'를 연다.

도서관을 지역 생활공간으로 확장하고, 시민 일상 속 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족 공연으로 '신기한 씨앗가게' 인형극을 선보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골든벨을 연다. 야외에서는 권선구 4개 도서관 동아리가 ▲텀블러 가방 만들기 ▲새 활용 조명 만들기 ▲멋 글씨 소품 만들기 ▲줄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 지역 서점 5개소가 참여하는 '우리동네 지역 서점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지역 서점을 소개하고 도서와 기념품을 판매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림도서관 관계자는 "가족들이 도서관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글청, 이주배경 청소년의 AI 활용 경험 확대를 위한 'AI 영상 제작 특강' 진행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9월 30일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참여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이론 및 실습'을 진행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성장,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이 자치활동 과정에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활동들을 영상 및 숏츠 컨텐츠로 제작·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로 직접 표현해 향후 센터 홍보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AI 영상 콘텐츠의 특징 이해를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영상 기획과 프롬프트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하고, 앱을 활용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영상 제작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한 콘텐츠 업로드를 위해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인 초상권, 저작권 등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AI로 동영상을 만들어보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했다. 작성한 대본이 음성과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라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자치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70-4125-3309)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Đến cả tư cách lưu trú và nguồn gốc vốn"... Xem xét kỹ hơn các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 실시

Chính phủ Hàn Quốc sẽ tăng cường điều tra về nguồn gốc vốn và tư cách lưu trú khi người nước ngoài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như nhà ở hoặc đất đai tại đây. Đặc biệt, cần lưu ý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mua bất động sản bằng nguồn tiền mang từ nước ngoài vào hoặc kinh doanh cho thuê không đúng với tư cách lưu trú của mình.

Bộ Địa chính, Hạ tầng và Giao thông Hàn Quốc cho biết đang tiến hành điều tra 840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có nghi ngờ vi phạm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sàng lọc từ các giao dịch nhà ở, bất động sản phi nhà ở (như cửa hàng thương mại) và đất đai trên toàn quốc đã được khai báo từ tháng 6 năm 2025 đến tháng 7 năm 2026. Cuộc điều tra đã được bắt đầu vào tháng 8 năm 2026 và sẽ tiếp diễn cho đến tháng 12 năm nay. Chính phủ dự kiến sẽ công bố kết quả điều tra vào cuối năm nay.

Xác minh kỹ lưỡng nguồn gốc vốn mua bất động sản

Trong cuộc điều tra lần này, chính phủ sẽ xác minh nguồn tiền mà người nước ngoài chuẩn bị để mua bất động sản một cách chi tiết hơn trước. Theo Nghị định thi hành「Luật về Khai báo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được sửa đổi vào tháng 2 năm 2026, thông tin mà chính phủ có thể kiểm tra và xác minh cũng đã được mở rộng.

Theo đó, chính phủ sẽ tiến hành điều tra các giao dịch đáng ngờ bằng cách sử dụng các thông tin như: ▲ nguồn vốn có được từ việc bán cổ phiếu, trái phiếu, tiền ảo ▲ tiền vay từ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nước ngoài ▲ tư cách lưu trú (loại visa)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mua bất động sản. Do áp dụng các tiêu chuẩn mới, số lượng đối tượng điều tra cũng tăng từ 605 trường hợp vào năm ngoái lên 840 trường hợp vào năm nay. Chính phủ đang đặc biệt xác minh xem nguồn vốn mua bất động sản do người nước ngoài khai báo có khớp với nguồn gốc vốn thực tế hay không, đồng thời điều tra xem có trường hợp nào đưa tiền mua bất động sản từ nước ngoài vào trong nước một cách bất hợp pháp hay không. Ngoài ra, cơ quan chức năng cũng đang tập trung xem xét kỹ lưỡng l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có đang kinh doanh cho thuê bất động sản vốn không được phép đối với tư cách lưu trú của họ hay không.

Cần lưu ý cư trú thực tế nếu mua nhà tại Khu vực cấm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nếu chưa có phép (Khu vực cần cấp phép giao dịch đất đai)

Người nước ngoài mua nhà tại Khu vực cần cấp phép giao dịch đất đai cũng cần đặc biệt lưu ý đến nghĩa vụ phải thực hiện cư trú thực tế tại ngôi nhà đó. Bộ Địa chính, Hạ tầng và Giao thông Hàn Quốc phối hợp cùng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hư Thành phố Seoul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xem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ực sự đang cư trú tại ngôi nhà đã mua sau khi được cấp phép giao dịch đất đai hay không.

Nếu xác nhận được thực tế không tuân thủ nghĩa vụ cư trú thực tế, chính quyền thành phố, quận, huyện nơi có ngôi nhà đó có thể đưa ra lệnh thực thi. Nếu không tuân theo lệnh này, người vi phạm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bắt buộc thực thi (tiền phạt do vi phạm lệnh), và trong trường hợp vi phạm lặp đi lặp lại, giấy phép giao dịch đất đai cũng có thể bị hủy bỏ.

Cuộc điều tra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đã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ăm 2022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bắt đầu tiến hành các cuộc điều tra theo kế hoạch đối với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năm 2022, sau khi phát hiện các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mua nhà có giá trị cực kỳ cao hoặc mua nhiều căn nhà bằng nguồn vốn mang từ nước ngoài vào.

Việc đơn thuần mua nhà bằng nguồn vốn mang từ nước ngoài vào không phải là vấn đề. Tuy nhiên, cơ quan chức năng là đang xem xét liệu nguồn vốn đó có được mang vào trong nước một cách bất hợp pháp từ nước ngoài hay không, hoặc có bị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đầu cơ vi phạm pháp luật hay không. Dù sao đi nữa, nếu là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mua bất động sản tại Hàn Quốc, cần phải chuẩn bị các giấy tờ liên quan để có thể chứng minh rõ ràng nguồn gốc vốn mua bất động sản...〈중략, 한글 기사 1면〉

“连居留资格、资金来源都要查”...韩国将进一步加强对外国人房地产交易的调查

外国人在韩国进行住房或土地等不动产交易时，政府将进一步加强对资金来源和居留资格等方面的调查。使用从海外带来的资金购买房地产，或不符合居留资格从事租赁业务的情况时尤其需要注意。

国土交通部表示，已从2025年6月至2026年7月申报的全国住宅、商铺等非住宅及土地交易中筛选出840起涉嫌外国人违法的房地产交易并正在调查。调查于2026年8月开始，并将持续到12月。政府计划于今年年底公布调查结果。

详细确认购房资金来源

此次调查将比以往更详细地核实外国人购买房地产时资金来源。根据2026年2月修订的《房地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施行令》，政府可核实的信息范围也得到了扩大。 因此，将对▲出售股票•债券•虚拟货币筹集的资金▲从海外金融机构借款▲购买房地产的外国人的居留资格（签证种类）等信息进行调查可疑交易。随着采用新标准，调查对象也从去年的605件增加到今年的840件。 政府尤其会核实外国人申报的房地产购置资金是否与实际资金来源一致，并调查是否存在将海外房地产购置资金非法带入国内的情况。 同时，也在重点检查外国人是否从事其居留资格所不允许的房地产租赁业务。

在土地交易许可区域购买住宅，要注意实际居住义务

在土地交易许可区内购买住房的外国人，还需要注意实际居住义务。国土交通部计划与首尔市等地方政府共同检查外国人是否在获得土地交易许可后购买住房并实际居住。 一旦确认未履行实际居住义务，房屋所在市、郡、区可下达履行命令。 如不遵守该命令，可能会被处以履行强制金，且在屡次违规的情况下，土地交易许可甚至可能被取消。

房地产交易调查自2022年起实施

政府自2022年起开展针对外国人房地产交易的专项调查，此前已发现一些外国人购买高价住宅，或者利用从海外汇入的资金购买多套住宅等情况 。

单纯使用从海外汇入韩国的资金购买住宅，并不会成为问题 。只是要调查这些资金是否被非法从海外带入国内，或是否因违法而被用于房地产投机。

总之，凡是在韩国购买房地产的外国人，都应准备相关文件，明确证明购房资金的来源，并确认自己的居留资格是否允许从事房地产租赁等经济活动 。特别是购买土地交易许可区内的住宅时，必须确认实际居住义务等许可条件。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세계의 언어로 수원을 말하다



제12회 수원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다문화 인식개선 및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 공감의 장

주 제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수원

대회 일시	2026. 12. 12.(토) 14:00~16:00
장소	수원시청 대강당(별관 2층)
참가부문	이중언어 말하기
참가대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본선 진출자 발표	2026. 11. 9.(월) · 개별통보

참가접수 2026. 10. 12.(월) ~ 10. 30.(금) 18시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방문 접수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송죽동, 신성빌딩 3층)
이메일	mcsuwon-korea@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접수처로 유선 확인 필수 ※ 이메일 접수 후 접수번호 확인 필요
주최/주관	수원시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비공식 홍보물]

수원특례시 2026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모집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수원을 그리다



네이버폼 신청

토론회 일정

2026. 11. 4. 수
15:00 ~ 17:00
수원 라마다 호텔 3층

모집정보

기간 | 2026. 10. 01~10. 23.
대상 | 거주지 또는 직장의 주소가 수원시인 사람
인원 | 시민계획단 000명
청소년 계획단 000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wjd9001@korea.kr
방문/우편 접수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수원시 홈페이지>새빛톡톡>신청접수

☎ 031-5191-3989 수원시 도시계획과

4th 수원뷰티페스타

BEAUTYSUM

KOREA SUWON

2026. 11. 5목 ~ 11. 7토
수원컨벤션센터

2026 Nov. 5th Thur-7th Sat
SUWON CONVENTION CENTER

주최 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주관 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MESSE ESANG 메쎄이상

100여개의 브랜드가 한자리에

수원에서 만나는 뷰티팝업

무료 사전등록 OPEN



BEAUTYSUM 2026

11. 5 목 - 7 토 | 광교 수원컨벤션센터

'2026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참여 이주민 및 시민 모집

수원시 주요 도시 정책과 이슈 논의하고, 수원시가 나아갈 방향 아이디어 제안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시민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주소지가 수원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도 참여해 수원의 도시정책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네이버 폼(홍보물 큐알(QR) 코드 스캔), 새빛톡톡(신청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수원시청 도시계획과)으로 신청해도 된다.

2012년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주요 도시 정책과 이슈를 논의하고 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 의견 수렴·토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바라는 수원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한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계획인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영흥공원 조성, 롯데몰(현 타임빌라스 수원) 개점 시기 등 수원의 주요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올해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수원을 그리다'를 주제로 논의한다. 2026년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는 11월 4일 오후 3시 수원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각과 경험이 모일 때 더 풍성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수원의 미래와 내가 사는 마을의 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 참여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5191-3989, 수원시 도시계획과.

〈중국어 하단, 영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水原市招募“2026年城市政策市民规划团”参与者(包括移居者和市民)

水原特例市 市长李在浚)将从10月1日至23日招募参与“2026年度城市政策市民规划团”的市民。

居住在水原或工作/学校地址在水原的外国居民和市民均可申请。青少年也可以参与,自由提出关于水原城市政策和未来的想法。

希望参与的市民可通过Naver Form(扫描宣传材料上的QR码)或Saebit TalkTalk(申请受理)进行申请。也可通过访问或邮寄(水原市政府城市规划科)方式申请。 水原市城市政策市民规划团于2012年以‘水原的未来,由市民之手创造”为宗旨成立,是水原市代表性的治理机构,旨在讨论主要城市政策和议题,并提出水原市未来的发展方向。

该规划团以收集和讨论市民意见为基础,描绘市民所期望的水原市未来蓝图。市民规划团通过市民公开招募、市民团体推荐等方式选拔,由市民、市议员、市民团体、学生、专家等组成。

该规划团与市民共同讨论了水原市的主要议题,包括法定规划《水原城市基本规划》的制定、永兴公园的建设、乐天购物中心(现水原Time Villas)的开业时间等。去年,他们还以‘水原经济自由区建设完成的战略是什么? ”为主题举行了讨论会,并交换了意见。

今年将以‘描绘全球文化旅游城市水原”为主题进行讨论。2026年市民规划团圆桌讨论会预计将于11月4日下午3点在水原华美达酒店大宴会厅举行。

水原市相关负责人表示:“当市民的思想和经验汇聚在一起时,才能建设一个更加丰富的城市。希望对水原的未来和我所居住社区的变化感兴趣的市民能够参与城市政策市民规划团,分享他们的各种想法和创意。” 咨询电话:031-5191-3989,水原市城市规划科。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Suwon Recruits Citizens for '2026 Urban Policy Citizen Planning Group’

Suwon Special City (Mayor Lee Jae-joon) is recruit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2026 Urban Policy Citizen Planning Group' from October 1st to 23rd. Any foreign resident or citizen residing in Suwon, or whose workplace/school address is in Suwon, can apply. Teenagers can also participate and freely propose ideas about Suwon's urban policies and future.

Citizens wishing to participate can apply via Naver Form (scan QR code on promotional material) or Saebit TalkTalk (application submission). Applications can also be submitted in person or by mail (Suwon City Hall, Urban Planning Division).

Launched in 2012 with the aim of "building Suwon's future with citizens' hands," the Suwon City Urban Policy Citizen Planning Group is Suwon City's representative governance body that discusses major urban policies and issu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Suwon's future.

Based on citizen feedback and discussions, it presents the future vision of Suwon City desired by its citizens. The Citizen Planning Group members are selected through public recruitment, recommendations from civic organizations, etc. It is composed of citizens, city council members, civic organizations, students, and 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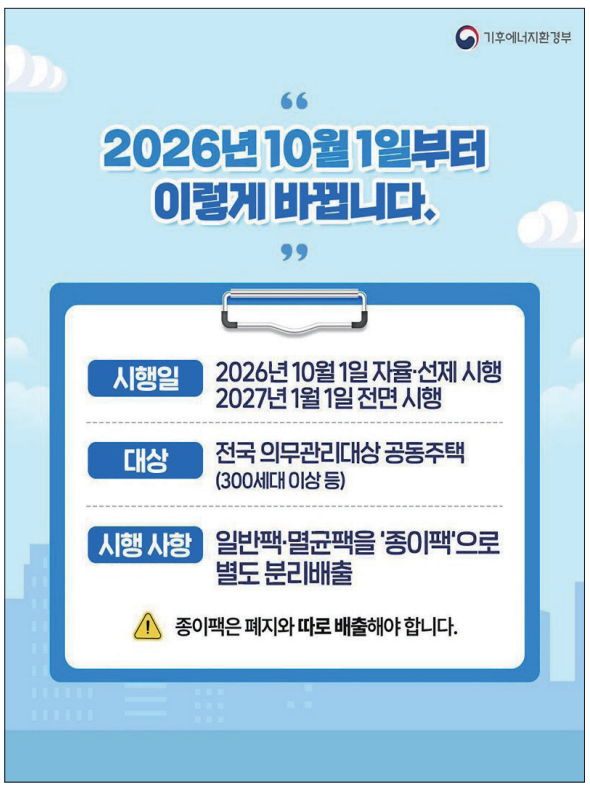
They discussed major issues in Suwon with citize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uwon Urban Master Plan (a statutory plan), the creation of Yeongheung Park, and the opening period of Lotte Mall (now Time Villas Suwon). Last year, they held a discussion forum on the topic of "What are the strategies for completing Suwon's Free Economic Zone?" and exchanged opinions. This year,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Envisioning Suwon as a Global Cultural Tourism City." The 2026 Citizen Planning Group Roundtable Discussion is scheduled to be held on November 4th at 3 PM at the Grand Ballroom of Ramada Hotel Suwon.

A Suwon City official said, "When citizens' thoughts and experiences come together, we can create a richer city," adding, "We hope that citizens interested in Suwon's future and the changes in their neighborhoods will participate in the Urban Policy Citizen Planning Group and share their diverse thoughts and ideas."

Inquiries: 031-5191-3989, Suwon City Urban Planning Division. 〈한글 기사 상단〉

PapayaStory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0월 1일
전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종이팩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자율·선제 시행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
대상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등)
시행 사항
일반팩·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별도 분리배출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별도 분리배출이 필요한
종이팩의 종류는?
일반팩
멸균팩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
종이팩 전용 배출함(봉투)으로 배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올바른
별도 분리배출 방법은?
일반팩
STEP 1 비우고
STEP 2 헹구고
STEP 3 납작하게
STEP 4 별도 분리배출
종이팩
멸균팩
STEP 1 자르고
STEP 2 비우고→헹구고
STEP 3 납작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지함 투입은 NO!
반드시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
종이팩을
신문·박스 등
폐지함에
넣지 마세요!
종이팩
종이팩 전용
배출함(봉투)에
넣어주세요!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자세한
배출 방법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이팩은 따로 배출!
잊지마세요
종이팩


2026 수원특례시
반려동물
한마음축제
수원 방문의해 기념 수원에 놀러오개!
2026. 10.24 토 10:00~17:00
광교중앙공원 (영통구 하동 1012)
토크콘서트 | 반려견패션쇼 | 입양카페 | 각종체험부스
주요행사
오시는길
주최
주관
후원


수원특례시
수원시립교향악단
Suwon Philharmonic Orchestra
Gustav Mahler
Symphony No.9
제305회 정기연주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2026.
10. 20. tue
19:30


수원특례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특별기획
수원의 이야기가
관광상품이 됩니다
수원 관광기념품·먹거리 공모모집
수원 관광기념품
수원 먹거리
수원 관광 연계상품
모집분야 관광기념품, 홍보지원대상(먹거리)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kagus2121@korea.kr)
문 의 처 수원시청 관광산업과 ☎ 031-5191-2416

세계 전통무용 공연 수원에서!

국제자매도시 예술단, 가을축제 공연

'수원을 진정한 문화관광 상생도시로'

10월 4일 시작된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가 11일 '수원판타지-야조' 공연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8일간 수원화성 일원에서 '새빛홍민'을 주제로 열렸다. 새빛홍민은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로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올해는 축제 공간을 확장해 수원화성 내부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했다. 행궁광장과 화성행궁, 연무대, 용연, 전통문화관에서 '수원 판타지-야조', 수상퍼포먼스 '선유몽', '시간여행_그날 행궁야화', 시민의 위대한 건축 '화홍', 수원 가마레이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케이(K) 컬처로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은 10월 4일 펼쳐졌다.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시를 방문한 국제자매도시 예술단도 수원화성 가을축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앞두고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했고, 프랑스 뚜르,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일본 후쿠이, 중국 주하이, 인도네시아 반둥, 캄보디아 시엠립 등 6개 도시 대표단이 방문했다.

10월 3일과 5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공연에 앞서 각 도시 공연단이 각국의 전통 무용·춤을 선보였고, 3일 열린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 자매우호도시의 날' 환영 만찬에서는 주하이시와 클루지나포카시 예술단이 전통 무용 공연을 했다. 4일에는 행궁광장 무대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 도시 예술단이 공연을 했다. 수원시는 '수원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 자매도시 공연단에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수원의 매력과 도시 브랜드를 알렸다. 공연단은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을 견학하고,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체험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만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진정한 '문화관광 상생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1일 연무대 특설무대에 오른 이재준 수원시장은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대왕의 8일간 위대한 여정을 위대한 축제로 계승한 시간이었다"며 "정조대왕 능행차는 '케이(K)-컬처로드'로 우뚝 설 잠재력과 저력을 증명했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는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의 온기가 도시 전역으로, 골목상권으로 퍼지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문화관광 상생도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13일 센터 대강당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관광협회 회원사와 함께 '짜장면 데이(DAY)' 행사를 열었다.

이주배경 청소년 8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도관광협회 소속 중국음식점 3개소가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짜장면과 군만두 등 중식을 제공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함께 식사하며 소속감과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참여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50개 기업 참가 300명 채용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생명·반도체, 제조업, 복지 등 분야의 50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찾는 수원시민은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채용관에서 현장면접을 하고, 취업정보관에서는 수원일자리센터·수원시 신중년센터·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5개 일자리 관련 기관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반도체 기업 채용담당팀장의 취업특강(취업 꿀팁 노하우)도 열린다.

부대행사로 ▲인공지능(AI) 취업지원(자기소개서 첨삭, 모의면접) ▲인공지능(AI) 체험(퍼스널컬러, 포토, 관상) ▲직무 가상현실(VR) 체험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타로 등을 운영한다.

사전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실전면접 지원, 적성검사, 멘토링 프로그램 '아주나이스(AJOU NICE)한 만남'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첨단기업, 복지 등 특화 분야 중심의 일자리 매칭으로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모든 연령대 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5191-3273 송하성 기자

'수원을 기억하는 한 가지, 수원을 맛보는 한입'... 수원 대표 관광기념품·먹거리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2027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매력을 담은 특별한 관광기념품과 대표 먹거리를 공개 모집한다. '수원을 기억하는 한 가지, 수원을 맛보는 한입'을 주제로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담은 기념품과 먹거리를 발굴한다.

관광기념품 분야는 수원의 유무형 자산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실용성·상품성·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모집한다. 선물용으로 포장해 바로 판매할 수 있고 보관·운반이 편리해야 한다.

홍보지원 대상인 먹거리 분야는 수원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소재로 한 약과·샌드·쿠키·한과 등 다과류가 대상이다. 상온 보관과 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한입 크기나 휴대하기 편리한 선물용 제품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이주민도 도전해 보자. 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 서류를 작성해 23일까지 전자우편(skagus21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기념품 신청자는 서류 제출 후 10월 28~29일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먹거리 분야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지만, 발표에 필요한 경우 관광기념품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신청 제품을 사전 심사한 뒤 수원시 관광기념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11월 18일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먹거리 분야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의 매력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과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지역의 특색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수원시 관광산업과(031-5191-2416)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전업주부의 일상에 활력과 재충전 선물!

용인시가족센터, '전업주부 위한 힐링마더스클럽' 운영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2026년 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 '가사스트레스 톡!톡!'의 일환으로 '전업주부를 위한 힐링마더스클럽'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가사와 양육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전업주부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비롯해 정리수납교육, 푸드테라피, 공예테라피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업주부들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업주부들은 "무료한 일상에 활력이 생겨 즐거웠다", "나의 성향을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주부들과 스트레스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유지영 센터장은 "이번 힐링마더스클럽이 가사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전업주부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업주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하반기에 맞벌이 워킹맘·워킹대디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돕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벌이가족지원사업 '라이프 ON 1기'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16개 강좌 단기교육 수강생 모집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조리·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수강할 236명의 시민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3차 단기교육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나를 위한 한 끼 등 조리 분야 2개 ▲아로마 DIY 뷰티 분야 1개 ▲의류 수선과 리폼 등 기술·실용 분야 2개 ▲스마트폰 활용 백서 등 정보화 분야 4개 ▲생활 속 재테크 등 인문·교양 분야 2개 ▲디지털 사진 완전 정복 등 문화예술 분야 5개 등 총 6개 분야 16개 강좌로 구성됐다. 19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책정된다.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lll.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강좌에 대해선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용인특례시, 다국어 특성화 성복도서관 개관 5주년 맞아 10월 문화 행사 한가득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성복도서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간 시민과 함께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5주년 행사 대표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6일 매봉근린공원에서 열린 야외도서관 '성복동 북크닉(BOOKNIC)'이다. 북크닉은 책(book)과 소풍(picnic)을 결합한 말로 야외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는 문화 행사다.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 성복도서관의 지난 5년을 기록하는 '성복도서관 5년,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성복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한 추억과 축하·응원 문구를 남기면 이를 모아 5주년 기념 책자로 제작,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개관 5주년 축하 문구 등을 작성해 제출한 이용자에게는 다회용 컵을 증정한다.

다국어 특성화 도서관인 성복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월 24일과 25일에는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

10월 2일부터 30일까지는 성인 대상 영어 독서 강좌 '그림책으로 배우는 리얼 영어2'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초등학생 대상 증강현실(AR) 연계 영어 독서 프로그램인 '맛있게 읽는 영어 독서'가 이뤄진다.

작가와 함께 책을 깊이 있게 읽는 시간도 마련했다. 10월 19일에는 '미국 영어 미국 문화에 대하여'를 쓴 김아영 작가를 초청해 '미국 문화의 패턴이 실제 미국 영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정기간행물 교환전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기다리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 로비에서 시민들이 가져온 책 한 권당 도서관이 보유한 과년도 정기간행물(지난해 이전에 발행된 잡지 등) 6권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10월 18일에는 초등학교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읽고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성복 품은 행복 케이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로비에서는 공예용 종이로 자신만의 기념 키링(열쇠고리)을 만드는 '성복 품은 행복 키링'이 이뤄진다.

또 성복도서관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이용자에게 기념 쿠키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개관 5주년 기념 프로그램별 진행 일시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성복도서관 누리집(lib.yongin.go.kr/seongbok/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6193-1703)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성복도서관을 사랑해 주신 시민과 함께 5주년을 맞이하게 돼 뜻깊다"며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한 권의 기록으로 남겨질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복도서관의 5주년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cho gia đình ở quê nhà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ể chăm sóc con cái" 자녀 돌보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Hiện nay, có rất nhiều cha mẹ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để chăm sóc con nhỏ trong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Tuy nhiên, khi đứa trẻ lên 11 tuổi, ông bà vốn đang chăm sóc trẻ sẽ phải rời khỏi Hàn Quốc. Điều này là do độ tuổi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nuôi dạy con cái đang được quy định là từ 10 tuổi trở xuống. Vì không phải cứ 10 tuổi thì cần chăm sóc còn 11 tuổi thì không cần, nên nhiều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phải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Thế nhưng, tiêu chuẩn này dự kiến sẽ được nâng lên thành từ 12 tuổi trở xuống.

Vào ngày 18 tháng 9 vừa qua,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cuộc họp 'Ủy ban phân ban thực hành hỗ trợ sự trưởng thành của thế hệ nhập cư thứ hai' với sự tham gia của 8 bộ ngành, bao gồm Bộ Giáo dục,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và Cơ quan Đồng bào Hải ngoại. Cuộc họp nhằm thảo luận về các phương án định cư ổn định cho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ồng thời xây dựng các quy định định nghĩa và hệ thống hỗ trợ phù hợp cho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có gốc gác nhập cư. Trong nghị trình đầu tiên, ủy ban đã thảo luận về phương án mở rộng độ tuổi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nuôi dạy con cái từ 10 tuổi trở xuống như hiện tại lên thành 12 tuổi trở xuống, nhằm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tại Hàn Quốc cho gia đình ở quê nhà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Ngoài ra,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nuôi dạy con cái một cách thiết thực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ủy ban cũng thảo luận về phương án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ưu trú vốn đang có thời hạn tối đa là 7 năm của gia đình ở quê nhà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ặc biệt, dự kiến chính hệ thống mời gia đình ở quê nhà của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sang để chăm sóc con cái cũng sẽ được thay đổi theo hướng tăng cường hỗ trợ mang tính nhân đạo hơn.

Trong nghị trình thứ hai, dựa trên kết quả thảo luận của cuộc họp Ủy ban phân ban thực hành lần thứ nhất được tổ chức vào ngày 15 tháng 7, ủy ban đã xem xét các quy định định nghĩa và phương án hỗ trợ đối với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có gốc gác nhập cư. Hiện tại, số lượng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có gốc gác nhập cư đã tăng 51,7% từ 187.000 người vào năm 2021 lên 284.000 người vào năm 2025.

Theo xu hướng gia tăng của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có gốc gác nhập cư như hiện nay,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và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Hàn Quốc có kế hoạch sửa đổi「Luật Cơ bản về Đối xử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để bổ sung quy định định nghĩa mới về 'người có gốc gác nhập cư'. Đồng thời, cục sẽ xây dựng cơ sở pháp lý để có thể thực hiện các cuộc khảo sát thực trạng cũng như hỗ trợ cư trú cho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có gốc gác nhập cư.

Quyền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Lee Jin-soo nhấn mạnh: “Chúng tôi sẽ hợp tác chặt chẽ với các bộ ngành liên quan để thúc đẩy các chính sách một cách nhanh chóng, nhằm giúp các gia đình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ó thể yên tâm nuôi dạy con cái tại đất nước chúng ta, đồng thời hỗ trợ thế hệ nhập cư thứ hai trưởng thành và trở thành những thành viên lành mạnh của xã hội Hàn Quốc”.

파파야스토리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облегчение бремени отправки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и почты семьям на родине» 국내 거주 동포·가족 대상 정주 지원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и и ностранной полити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глава Ча Ён Хо) и Почтовая служба Министер 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глава Пак Ин Хван) 28 авгус т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 о поддержке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зарубежны 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и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 х в стране, в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Кванхвамун в районе Чонногу, Сеул.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соглашением, соотеч 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обладате ли виз F-4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 в и H-2 для време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их семьи получат 10% скидку на услуги междуна родной экспресс-почты (EMS·EMS Premium), л ьготную процентную ставку до 0,15% при испо льзовании почтовых сбережений и 30% льгот ный обменный курс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межд ународных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оможет снизить брем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чтовых услуг между соотече ственниками и их семьями на родине,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плое общение и связи между семьями, преодолевая границы и расстояния.

Поскольку 37 центров поддержки проживан 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удут и нформировать и продвигать содержание под держ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соглашением, а также доступные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и спосо б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их се мьи, желающи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м 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бли жайшем центре. Ча Ён Хо, глава Главного упр авления п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и иностранной п олити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заявил: «Бла годаря этому соглашению мы смогли расшири ть поддержку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ориентирован ную на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которую зарубеж 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ощутить в проце ссе адаптации в стране. Мы продолжим прила 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поддержки стабильного обуст ройства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зарубежны 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Пак Ин Хван, глава Почтовой службы, вырази л надежду: «Мы ожидаем, что это соглашение окажет реальную помощь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 ественникам и их семья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ст ране, в более удоб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очтов ых и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будущем мы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 во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 е услуги гражданам 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 енник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стране, используя с еть почтовых отдел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Глав 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и иностр анной полити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осре дством эт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оздаст условия, по зволяющ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роживающи м в стране, постоянно общаться с семьями на родине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емейные отношения, 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разработать и активно про двигат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задачи по 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 рые будут ощутимы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파파야스토리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가 진행한 외국인주민 대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취득 과정'이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 속에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기교육은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총 64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실기교육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이후에 진행됐다.

외국인주민들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익히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배웠다. 특히 총 22명의 신청 수강생 중 1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자격 취득까지 이어지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센터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자격 취득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만큼, 이번 과정이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넓은 취업 기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중국 양저우시와 교류 활성화 '용인시민의 날' 맞아 간담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1회 용인시민의 날'을 맞아 용인을 찾은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대표단과 간담회를 했다. 용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린정위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등 양저우시 관계자와 두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저우시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문화·관광, 청소년, 행사·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양저우시는 시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다. 시는 지난 2000년 5월 10일 양저우시와 자매결연한 이후 26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천쥔 부시장 등 양저우시 대표단이 용인을 방문해 이상일 시장과 산업·문화·청소년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4월에는 양저우시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연화삼월 국제경제무역관광절'에 시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저우시 대표단은 전날인 3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제31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2026 대한민국 조아용페스티벌'에 참석해 시 승격 30주년을 축하했다.

송하성 기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

24일 신갈천 일원서 공연·체험·먹거리 축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흥구 신갈천 일대에서 '2026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재)용인문화재단과 신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체험을 통해 신갈오거리와 신갈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신갈천 기흥교에서 갈천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열리며, 거리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도시재생 홍보·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가수 알리·신용재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대형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창작 아트월', 대형 인형이 행사장을 누비며 관람객과 교감하는 '자이언트 퍼펫 백두', 어린이가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어린이 플리마켓' 등이 마련된다. 용인문화재단 거리공연 지원사업 '아임버스커' 참여 예술인들은 신갈천 곳곳에서 기악과 전통연희,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예술 체험으로는 신갈천의 자연환경과 도시재생을 소재로 한 전구볼·말랑이·풍경·가을 액자 만들기 등 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청년, 대학생, 생활문화 동호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도 축제에 참여한다. 용인문화재단 '유스버스커'의 청소년·청년 예술가 공연을 비롯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유학교 학생들의 난타, 단국대학교 뮤지컬 전공 학생과 지역 생활문화 동호회의 공연 등이 열린다.

www.yicf.or.kr 송하성 기자





구리시새마을회(회장 안정섭)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구리시새마을회관에서 관내 다문화가정과 새마을지도자구리시부녀회(회장 이혜순)가 함께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직접 담그며 다문화가정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적응과 주민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새마을부녀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전통 고추장 420㎏을 직접 담갔다. 정성껏 만든 고추장은 관내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남겼다. 또한 직접 담근 고추장을 이웃과 나누며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정섭 구리시새마을회장은 "전통 고추장 담그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적 화합을 이루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맛있는 한 끼 즐기고 기념품 받자!"

구리시, 31일까지 '와구리맛집 리뷰인증 이벤트' 운영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구리시 지정 우수 음식점인 '와구리맛집' 방문자를 대상으로 '와구리맛집 리뷰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구리시의 우수 음식점을 널리 알리고, 이용객들의 생생한 방문 후기를 공유해 지역 외식 문화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하려면 행사 기간에 '와구리맛집' 지정 업소 57개소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식사한 뒤, 당일 이용 후기를 작성하고 해당 업소에 인증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지정 업소 명단과 위치는 '구리시 와구리맛집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후기 인증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와구리 인형 열쇠고리' 또는 '와구리 장바구니'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기념품은 총 9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제공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구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식점 방문과 이용 후기 공유를 이끌고, 와구리맛집을 널리 알려 지역 외식 업계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구리시의 다양한 맛집을 직접 찾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와구리 기념품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드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와구리맛집을 널리 알리고 지역 외식 업계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와구리맛집'은 구리시가 2023년부터 음식의 맛과 위생,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지역 우수 음식점으로, 현재 총 57개 업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신동화 구리시장, 주민 의견 청취 '시민 공감 로드체킹' 현장 점검해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0월 14일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현장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에서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설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과 제도상 어려움을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먼저 인조잔디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이 조성 중인 시민운동장 현장을 방문했다. 신 시장은 경기장과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의 시공 상태를 살피고, 시민 불편 민원이 제기된 인접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로의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차량 과속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시민운동장 현장 점검을 마친 신 시장은 이어 토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의 농지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 시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농지 관련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과 처리 절차 등을 보고받은 뒤, 현장 여건을 살피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지은 기자

구리시, 지방세 전자 송달 등 안내 휴대전화 앱으로 지방세 고지 받아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2026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 납부 제도를 알리고 현장 신청을 받았다.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제도다. 우편물 분실이나 반송 걱정 없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 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이용하면 고지서 1장당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면 공제액은 최대 1,600원이다. 구리시는 축제 기간에 홍보 공간을 찾은 시민들에게 제도별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청을 도왔다. 다문화가족도 이러한 방법을 잘 이해해야겠다.

이지은 기자

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เพลิดเพลินกับ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แบบ “1 คืน 2 วัน” ในราคาประมาณ 100,000 วอน 외국인주민도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 อาหาร 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 จะเริ่มทดล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 “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เฉพาะทาง” ตั้งแต่วันที่ 8 ตุลาคม โดยอิงตาม รูปแบบนำร่องของเขต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ในระดับพื้นที่ปกครองส่วนภูมิภาค 11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

เมื่อ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 อาหาร 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ได้พัฒนา “โมเดลนำร่องเขต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ในระดับพื้นที่ ปกครองส่วนภูมิภาค โดยเชื่อมโยงทรัพยาก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ที่หลากหลายในพื้นที่ที่กว้างขึ้น ซึ่งไม่ได้จำกัดอยู่เพียงเขตการปกครอง ระดับ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 เพื่อเพิ่มจำนวนนักท่องเที่ยวที่เดินทางมายังชนบท และรองรั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ด้าน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บบพำนักค้างคืน ที่เพิ่มขึ้น เป็นต้น เป็น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แบบหมู่คณะจำนวนทั้งหมด 11 เส้นทาง ระยะเวลา 1 คืน 2 วัน ตามรูปแบบนำร่องทั้ง 11 แห่งของเขตท่องเที่ยว ชนบท ได้แก่ คยองกี, คังวอน, ชุงบุก, ชุงนัม, จอนบุก, จอนนัม-ควังจู, คยองบุก, คยองนัม, เจจู, และเส้นทางเดินป่าตะวันออก-ตะวันตก (ชุงนัม, คยองบุก) โดยกำหนดราคาไว้ในช่วงต้นของหลัก 100,000 วอน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ของนักท่องเที่ยว

นักท่องเที่ยวสามารถ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ด้านสุขภาวะ (Wellness) ในสถานที่ต่าง ๆ เช่น ป่าบำบัดและป่าพักผ่อนหย่อนใจตามธรรมชาติ หรือเพลิดเพลินกับร้านอาหารขึ้นชื่อของเกษตรกร, ปรมาจารย์ด้านอาหาร และโรงหมักสุราที่เปิดให้เข้าชมได้ เป็นต้น 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ยั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พักและใช้บริการโปรแกรมกิจกรรม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หลากหลายในหมู่บ้าน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พักผ่อนและ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 ในชนบท ตลอดจนเยี่ยมชมสถานที่ท่องเที่ยวสำคัญในท้องถิ่นได้ โดยนักท่องเที่ยวจะได้สัมผัสทรัพยาก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ที่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พื้นที่ ชนบทผ่าน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เพียงรายการเดียว

ในช่วงเริ่มต้น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นำร่อง เพื่อให้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ของ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มีเสถียรภาพและเพิ่มอัตรา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 เป็นต้น มี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 10 รายการ โดยยกเว้น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เจจู ให้เป็นแพ็กเกจที่ออกเดินทางจากกรุงโซล และกำหนด วันออกเดินทางให้เน้นไปที่วันพุธและวันเสาร์ สัปดาห์ละ 2 ครั้ง เพื่อเพิ่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ในการรวบรว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ทริปสำหรับ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เจจู จะนัดรวมตัวกันที่สนามบินเชจูแล้วจึงเดินทางต่อไป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กำหนดการและราคาของแพ็กเกจ ท่องเที่ยวแต่ละรายการได้ผ่านช่องทางจำหน่ายต่างๆ เช่น Naver Store, Webtour, ชัมโจอึน ยอแฮง(verygoodtour), โนรังพุงซอน(ybtour) และ KyowonTour รวมถึงสามารถจองผ่านช่องทางเหล่านี้ได้เช่นกัน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โดยละเอียดได้ที่เว็บไซต์ “Welchon’ ซึ่งเป็นพอร์ทัล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www.welchon.com)

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 อาหาร 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ได้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สัปดาห์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ในสัปดาห์ที่สองของทุกเดือน ตั้งแต่ เดือนมีนาคมถึงพฤศจิกายนปีนี้ และกำลังผลักดั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เพื่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และ เพลิดเพลินกับ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ได้ ผ่านนโยบายต่างๆ เช่น บัตรผ่าน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และ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สร้างสรรค์ ในชนบท เป็นต้น ในช่วงฤดูใบไม้ร่วงแห่ง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ระหว่างเดือนตุลาคมถึงพฤศจิกายน 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 “สัปดาห์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 ให้ครอบคลุมระยะเวลา 1 เดือน จอน ฮันยอง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สำนักนโยบายชนบท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 อาหาร 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 กล่าวว่า “ชนบทมีทรัพยาก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ที่ น่าดึงดูดใจมากมาย ทั้งธรรมชาติ อาหาร และกิจกรรม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เป็น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แต่ละพื้นที่” พร้อมกล่าวว่า “หวังว่า การทดลองดำเนินงานแพ็กเกจท่องเที่ยวเฉพาะทางที่อิงตามเขตท่องเที่ยวชนบทในครั้งนี้ จะเป็นโอกาสให้ประชาชนได้สัมผัสทรัพยากรการ ท่องเที่ยวที่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พื้นที่ชนบทด้วยตนเอง และได้พำนักอยู่ในชนบทพร้อมสัมผัสเสน่ห์ของแต่ละพื้นที่อย่างเต็มที่” 파파야스토리







양육 부담 완화 및 가족 관계 증진

광주시공동육아나눔터, '함께해요', 자유롭게 참여

광주시공동육아나눔터는 관내 3세~6세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함께해요'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과 관계 증진을 지원한다.

'함께해요'는 보호자와 자녀가 다양한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도록 돕고 있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공동육아나눔터는 2026년 5월부터 통미햇살마루 3층 실내놀이터와 파티룸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부모들이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하는 부모, 건강한 아이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2026년 양육자 교육 '성장하는 부모, 건강한 아이'를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마음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상담가가 참여해 자존감 형성과 관련된 뇌 기능 이해, 가정 내 긍정 양육 실천법, 뇌과학에 기반한 학습 지도법 등을 다룬다.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 특성과 심리적 요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격년으로 운영되며, 회기별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등 시민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62-2219)로 문의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ให้แก่สมาชิกครอบครัว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ซึ่งช่วยดูแลบุตร

ปัจจุบัน บิดามารดา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จำนวนมากกำลัง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พื่อดูแลบุตรที่ยังเล็ก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มื่อบุตรมีอายุครบ 11 ปี ปู่ย่าตายายที่คอยดูแลจะต้องเดินทาง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 เนื่องจากกำหนดอายุของผู้ที่ได้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ไว้ที่ 10 ปีหรือต่ำกว่า เพราะ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เด็กอายุ 10 ปี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 แต่เมื่ออายุ 11 ปี แล้วจะ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 ทำให้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จำนวนมากต้องประสบกั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อย่างมาก ทั้งนี้ มีแนวโน้ม ว่าเกณฑ์ดังกล่าว จะปรับเพิ่มเป็นเด็กอายุ 12 ปีหรือต่ำกว่า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จัดการประชุม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ย่อย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ติบโตของคนรุ่นที่ 2 ของผู้ย้ายถิ่น" เมื่อวันที่ 18 กันยายนที่ผ่านมา โดยมี 8 กระทรวง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เข้าร่วม ได้แก่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ทางเพ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สำนัก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เป็นต้น เพื่อหารือแนวทาง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อย่างมั่นคง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และจัดทำข้อกำหนด เกี่ยวกับคำนิยามขอ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รวมถึงระบ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แต่ละบุคคล

ในวาระที่หนึ่ง ได้มีการหารือแนวทางขยายอายุของบุตรที่อยู่ในเกณฑ์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ารเลี้ยงดูจากปัจจุบันคือเด็กอายุไม่เกิน 10 ปี เป็นเด็กอายุไม่เกิน 12 ปี เพื่อ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สมาชิกครอบครัว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นอกจากนี้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ด้านการเลี้ยงดู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อย่างเป็นรูปธรรม ยังได้หารือแนวทาง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ของ สมาชิกครอบครัว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ซึ่งปัจจุบันกำหนดไว้สูงสุด 7 ปี อีกด้วย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ระบบการเชิญสมาชิกครอบครัว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เข้ามาเพื่อดูแลบุตร มีแนวโน้มที่จะ ปรับเปลี่ยนไปในทิศทางที่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ให้มากยิ่งขึ้น

สำหรับวาระที่สอง ได้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ข้อกำหนดเกี่ยวกับคำนิยามขอ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รวมถึงแนวท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โดยอ้างอิงจากผลการหารือ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ย่อยครั้งที่ 1 ซึ่งจัดขึ้นเมื่อวันที่ 15 กรกฎาคม ปัจจุบัน จำนวน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ที่มี 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เพิ่มขึ้น 51.7% จาก 187,000 คน ในปี 2021 เป็น 284,000 คน ในปี 2025 จากแนวโน้มจำนวน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เพิ่มขึ้นดังกล่าว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มีแผนแก้ไข「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นฐานว่าด้วยการ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เกาหลี」 โดยจัดตั้งคำนิยามของ "ผู้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ขึ้นใหม่ และจัดทำฐานทางกฎหมายที่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ารอยู่อาศัยและการสำรวจ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 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ได้ เป็นต้น 〈한글 지난호 1면〉

อี จินซู รักษาการ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น้นย้ำว่า "เราจะร่วมมืออย่างใกล้ชิด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พื่อผลักดันนโยบายที่เกี่ยว ข้อ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พื่อให้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ผู้ย้ายถิ่นฐา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สามารถเลี้ยงดูบุตรได้อย่างสบายใจ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 และให้คนรุ่นที่ 2 ของผู้ย้ายถิ่น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เป็นสมาชิกที่มีสุขภาพดีของสังคมเกาหลี"

가족상담 안내

모두가 봄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 가족 및 부부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일상의 스트레스로 힘든 경우
-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용 안내

- 월요일 ~ 목요일 09:00~18:00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18:00~21:00

☑ 상담 이용료

- **1회기 10,000원**
  개인상담 8회기
  부부 및 가족상담 10회기

상담 문의 031-798-7138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용 안내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
1)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2) 교육 과정 통역
3) 병원, 동사무소, 은행, 법원,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 통역
4)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관련 통·번역 지원 : 주거, 생계, 의료지원 등

번역
1)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학구부, 처방전 등
2) 이혼청구서, 양육비 청구서
3) 범죄경력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관련 서류 번역
4) 어린이집, 학교 가정통신문 등
★ 베트남어, 중국어 외 타언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번역 요청 시 인근 가족센터로 연계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1) 임신, 출산, 양육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
2) 국적취득 신청 , 친정부모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정보 제공
3) 광주시가족센터 관련 프로그램 안내 등
4) 고용센터 업무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 서비스 제공 및 신청 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통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외부 출장지원 등
★ 다른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국어 통·번역사 : 070-4706-3744
베트남어 통·번역사 : 070-4706-3733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제공

학부모님의 원활한 학교 소통을 돕기 위해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다문화 가정 학부모
2.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보호자
3. 외국어로 안내가 필요한 모든 가정
4.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1. 학교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제공
   * 주요 안내문 및 공지사항 번역
   * 필요 시 개별 안내문 번역 지원
2. 학교 상담 통역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

이용절차
전화 신청 > 신청서 및 원본파일 전송 > 번역 후 회신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언어는 별도 문의

비용
무료제공

문의
중국어 070-4706-3744
베트남어 070-4706-3733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 · 멘티 운영

멘토 · 멘티 서비스

이용 안내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이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신규등록 지원
★ 멘토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멘토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신청방법 ★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멘토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멘토·멘티 활동 이용 가능

문의처 070-4706-3733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담당자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A '2-Day, 1-Night' Rural Getaway for Foreign Residents-All for Around 100,000Won

Starting October 8,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ll launch a pilot run of "specialized travel packages" based on 11 regional rural tourism belt pilot models across the country.

In July, the Ministry developed these regional "rural tourism belt pilot models" to boost visitor numbers and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tay-based tourism; the initiative moves beyond the confines of individual city or county administrative boundaries to link diverse rural tourism resources across a wider area. These are group travel packages featuring 11 pilot models across the rural tourism belt—covering Gyeonggi, Gangwon, North Chungcheong, South Chungcheong, North Jeolla, South Jeolla/Gwangju, North Gyeongsang, South Gyeongsang, Jeju, and the East-West Trail (spanning South Chungcheong and North Gyeongsang). Each is a two-day, one-night itinerary priced in the low 100,000-won range to ensure affordability. Travelers can experience a wide range of rural tourism resources—such as wellness activities in "healing forests" and natural recreation forests, culinary delights at farm-to-table restaurants and venues featuring certified food masters or local breweries, and stays and diverse programs at rural experience villages—all integrated into a single travel package that also includes visits to local tourist attractions.

During the initial pilot phase, the program will feature ten packages departing from Seoul—excluding those for Jeju—to ensure stable operations and boost participation rates; departures will be concentrated on Wednesdays and Saturd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attracting travelers. For Jeju-bound packages, travelers will gather at Jeju Airport for the start of the tour. Itineraries and pricing for each package can be viewed—and reservations made—through various sales channels, including Naver Store, Webtour, Chamjoeun Tour, Yellow Balloon Tour, and Kyowon Tour.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rural tourism portal "Welchon" (www.welchon.com).

Meanwhil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signates the second week of each month from March to November as "Rural Tourism Week" and is continuously promoting rural tourism—enabling the public to stay and enjoy the countryside—through various initiatives such as the Rural Tour Pass and support programs for "Rural Creatours." During the autumn travel season of October and November, "Rural Tourism Week" will be expanded to run for the entire month.

Jeon Han-young, Director General of the Rural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tated, "Rural areas abound with attractive tourism resources—such as unique natural landscapes, local cuisine, and hands-on experiences—that are distinct to each region." He added, "We hope this pilot program, featuring specialized travel packages based on rural tourism..〈중략〉 파파야스토리

광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요

광주시, 민선 9기 시민과 토크콘서트 개최



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 지난 100일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민과 직통하는 100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5일 오후 4시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관열 시장과 시민대표,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브라스 밴드와 광주시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민선 9기 출범 100일 주요 성과 공유, 시민 대표와의 대화, 객석 시민 자유 질의응답, 미래비전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청소년, 청년, 교통,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분야별 시민 대표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면 박 시장이 직접 답변하며 해결 방안과 앞으로 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객석에 참석한 시민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관열 시장은 "지난 100일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광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 시대 백자도자 발전

광주시, '광주왕실도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광주시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3일 곤지암리조트 오푸스2룸에서 '2026 광주왕실도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백자도자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중국·일본·태국 등 국내외 도예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주왕실도자의 역사적 가치를 되짚고 현대 도예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백정호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백자도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이사장은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변화는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며, 과거의 백자를 박물관 안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다시 필요한 백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도예 교육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도자 디자인,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와 사례가 발표됐다. 주요 발표는 앤드류 카스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학과장의 '신기술과 미국 학계의 도예 교육', 따이샹 중국미술학원 교수의 '인공지능과 도예 교육', 챠논 태국 실파콘대학교 교수의 '지역 예술 및 문화 보존을 위한 학습 도구로서의 도자 디자인', 도다테 카즈코 일본 다마미술대학 교수의 '일본 백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곽윤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교수의 '흙, 불 그리고 알고리즘', 최응한 단국대학교 교수의 '확장형 인공지능 크리틱 프롤토콜'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이어 이반디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백자도자의 미래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도자 문화의 계승과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도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다이닝 「오늘을 담고, 내일을 잇는 식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문면주민자치센터 조리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건강 소스와 밑반찬, 전통음식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한 뒤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참여자 간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단체대화방을 활용해 도시락과 식사 사진을 공유하고, 조리한 음식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식생활 정보를 나누는 등 참여자 간 교류를 이어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1인가구는 "평소 혼자 식사를 준비할 때는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했는데, 직접 만든 음식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면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청년 1인가구에게 건강한 식생활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돌보는 중요한 생활 역량"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건강한 식사 준비와 함께하는 식탁이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참여자 간 형성된 관계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상담과 체험으로 가족의 회복 지원'

양평군가족센터, 교육청과 함께 '가족 카라반 캠프' 진행



양평군가족센터는 양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사례관리 대상 15가정, 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지평면 미리내클럽에서 '온가족보듬사업 가족 카라반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취약·위기가족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상담과 가족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첫날에는 전문상담사와 함께 부모·자녀 기질 및 성격검사와 가족상담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가족 내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 이후에는 카라반 바비큐와 가족명랑운동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협력하며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가족 산책과 보물찾기, 소감 나누기 등을 통해 캠프에서 경험한 변화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 보호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평소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웠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족의 회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캠프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시니어뷰티 프로그램 운영 성료



양평군가족센터는 65세 이상 노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자기돌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시니어뷰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니어뷰티」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노년 1인가구가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고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용 체험을 넘어 건강·뷰티·정서 치유를 통합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회기별로 전신 순환 및 실버 건강체조, 피부관리 및 셀프 케어, 싱잉볼 명상, 퍼스널 컬러 등 노년층이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됐다.

특히 마지막 회기인 10월 6일에는 지역 내 힐빙클럽과 연계해 아로마테라피와 족욕체험 등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6주간의 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한 참여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돌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우영 센터장은 "노년 1인가구에게는 건강관리뿐 아니라 편안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니어뷰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와의 민관 협력 공동사업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방·안전 물품 기부행사 및 한국민속촌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수강생과 강사, 인솔자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먼저 10일에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소방·안전 물품 기부식이 열렸다.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가정용 소화기와 구급키트가 다문화가족에게 전달됐으며, 하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 안전 및 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11일에는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현장 문화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전통 가옥과 생활상을 직접 보고 노리개 만들기 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장구, 북, 징, 꽹과리 등이 어우러진 신명 나는 '삼도판굿' 풍물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 전통 예술의 흥과 정서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의 전통 가옥과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라며, "특히 안전 물품 지원과 함께 친구,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하남시라는 지역사회에 더욱 친근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하남 맞벌이 부모 '우리집 함께 키움교실'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지원교육 '우리집 함께 키움 교실-마음 UP, 행복한 부모'를 운영했다.

'우리집 함께 키움 교실'은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이어가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며 협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 개인의 자기이해부터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역할분담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교육은 '마음 UP, 행복한 부모'를 주제로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에는 양육자 TCI 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돌아보며 부모의 감정돌봄 방법을 배웠다.

2회차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가사분담 활동을 진행하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가사 분담에 대해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고 역할을 정할 수 있어 좋았다. 2시간이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69점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9월 교육에 이어 10월에도 맞벌이 가족의 실제 양육 고민을 반영한 부모역할지원교육을 이어간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클릭 ITQ!' 사업 결혼이민자 엑셀 단체시험 진행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3까지 하남시 소재 현대컴퓨터회계코딩학원에서 하남시 결혼이민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ITQ 엑셀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엑셀 교육과 시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컴퓨터 조작, 타자 연습, 엑셀 작업 등 자격증 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했으며, 최종적으로 엑셀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취업 발판을 다지고,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서는 A등급 3명, B등급 4명, C등급 1명으로 응시자 대부분이 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필리핀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B등급을 취득했고, 올해 A등급을 목표로 재수강한 끝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며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엑셀 시험은 함수 등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어렵고, 제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압박감이 크지만, 참여자 전원이 시간 내에 답안을 제출하며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시험 직전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격려하며, 결혼이민자 전원이 끝까지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4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결혼이민자들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생님께 모르는 내용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직접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채용 공고를 찾아보거나 이력서를 작성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구직 의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여 경제적 자립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시험은 결혼이민자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멋지게 발휘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자립과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양육 친화 사회 조성, 모두 함께해요"

하남시가족센터,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시민 대상 '건강가정캠페인' 운영해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캠페인'을 운영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의 건강한 의미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건강가정캠페인은 지역주민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캠페인과 가족복지사업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9월 캠페인은 '다문화 인식 개선'과 '양육 친화'를 세부 주제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했다.

먼저 9월 12일에는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의상과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참여자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낯설게 받아들이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9월 30일에는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양육 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페이스페인팅 체험을 마련하여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사회가 아이와 가족을 함께 응원하는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두 캠페인 현장에서는 하남시가족센터가 체험활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복지사업을 홍보했다. 단순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가족의 건강한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일상에서 필요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번 건강가정캠페인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한편, 하남시가족센터의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캠페인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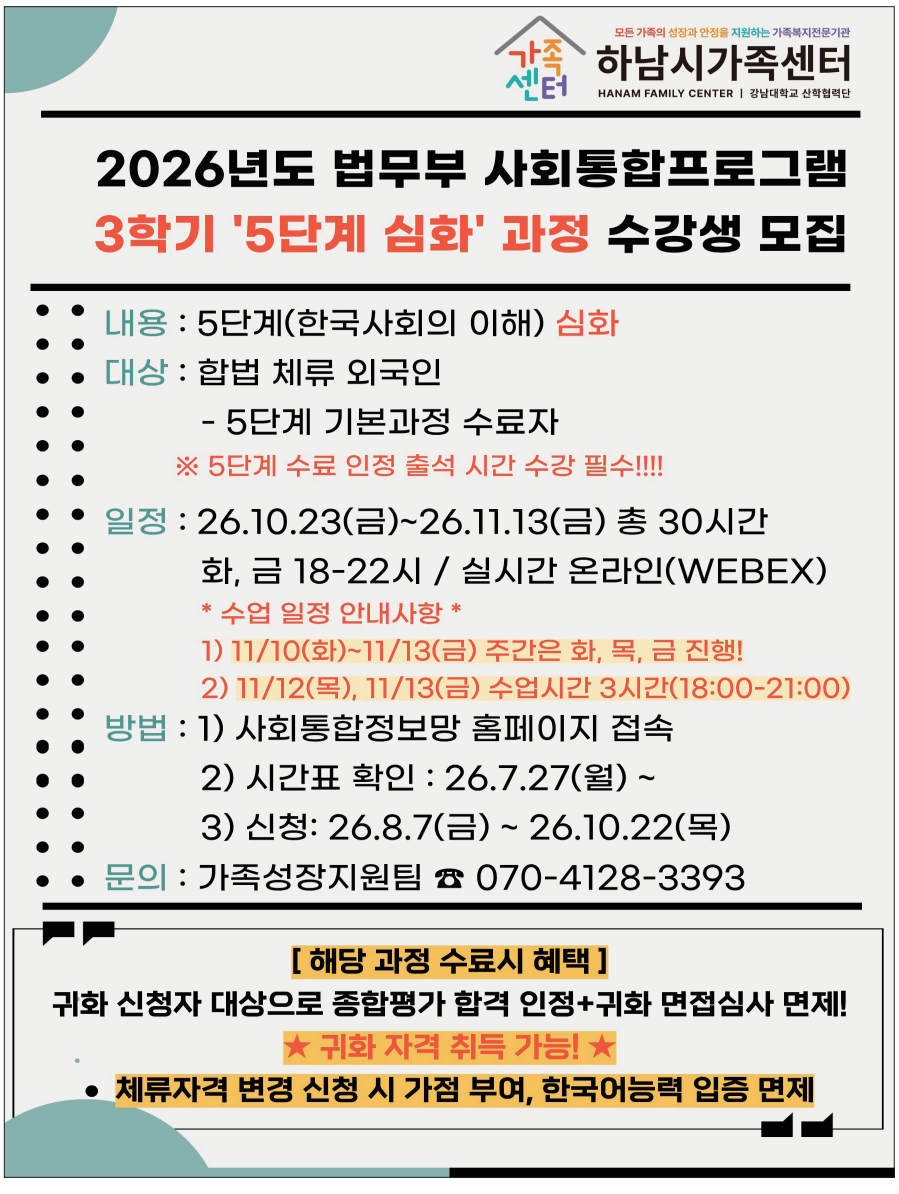
031-793-2993 이지은 기자











"함께 배우고 즐기며 소통하는 일상의 공간, 광명시가족센터"

〈인터뷰〉 남은정 센터장,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가족복지 공간 만든다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가 지난 8월 센터 이전을 마무리하고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4~5층에서 가족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오랜 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센터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함께 자리한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접할 기회도 한층 넓어졌다.

새로운 공간만큼 주목할 것은 그 안에서 펼쳐갈 가족지원의 방향이다. 남은정 센터장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앞서 '지역의 가족들에게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욕구조사와 가족 포럼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족의 서로 다른 상황과 필요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이어왔다.

이러한 세심함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상담과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등을 연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가족 스스로 일상을 회복할 힘을 기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합창단과 태권도, 가족봉사단 등은 서로 다른 가족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쌓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남은정 센터장으로부터 다양한 가족과 동행한 그간의 노력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펼쳐갈 가족지원의 방향을 들어봤다.

-새롭게 이전한 광명시가족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광명시가족센터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행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광명시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파트너'로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하면서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을 기반으로 특정 가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가족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설의 장점 및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변화는 공간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보다 상담이나 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생활문화복합센터 안에 자리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방문하는 공간을 넘어, 편하게 머물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새로운 공간의 장점을 살려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실 1,2는 공간을 합치거나 분리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된 만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부모교육과 가족문화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새로 생긴만큼 지역의 영유아 부모들이 편하게 오셔서 함께 육아를 나누고 품앗이 육아를 통해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통합가족센터 변경 이후에 가족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광명시는 다문화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에 통합가족센터로써 광명시가족센터는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넘어 모든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보다 '지역의 가족들에게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외에는 가족중심으로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돌봄, 상담,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센터의 노력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가족 문제는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족의 어려움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센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가족보듬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상담과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을 연계해 가족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한 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이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사례관리는 30가정, 실인원 120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올해는 현재 35가정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2025년 630가정, 연인원 2800가정이 상담을 받았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70가정, 1280가정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광명시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욕구조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가요?







From Residency Status to Source of Funds... Foreigner Real Estate Transactions Under Closer Scrutiny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면조사 안내

The government is intensifying scrutiny regarding the source of funds and residency status of foreign nationals involv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such as housing, commercial properties, and land—in South Korea. Particular caution is advised for those purchasing property with funds brought from overseas or engaging in rental businesses that violate the terms of their residency statu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it is investigating 840 real estate transactions by foreign nationals—involving housing, commercial properties, and land—that were reported between June 2025 and July 2026 and are suspected of involving illegal activity. The investigation began in August 2026 and is scheduled to continue through December.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findings at the end of this year.

Thoroughly verify the source of funds for the real estate purchase

This investigation involves a more detailed examination than before of the funding sources used by foreigners to purchase real estate. The scope of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government has also expanded following the February 2026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ccordingly, authorities will investigate suspicious transactions by analyzing factors such as *funds raised through the sale of stocks, bonds, or cryptocurrency; *money borrowed from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sidency status (visa type) of the foreign purchaser.

With the application of new criteria, the number of cases under investigation has risen from 605 last year to 840 this year.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s verifying whether the funds declared by foreigners for real estate purchases match the actual sources of those funds and is investigating instances where purchase funds were illegally brought into the country from abroad. Authorities are also closely examining whether foreigners are engaging in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that are not permitted under their visa status.

If you bought a home in a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be mindful of the actual residency requirement

Foreigners who purchase homes in areas designated as "land transaction permit zones" must be mindful of the obligation to actually reside in the propert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lans to collaborate with local governments—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to verify whether foreigners who obtained a permit to purchase a home are indeed living there. If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actual residency requirement is confirme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city, county, or district) may issue a compliance order. Failure to heed this order could result in the imposition of a compulsory compliance fine, and the land transaction permit itself could be revoked in cases of repeated violations.

Real estate transaction investigations was conducted starting in 2022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argeted investigations into real estate transactions by foreigners since 2022, following the identification of cases such as foreigners purchasing extremely expensive homes or acquiring multiple properties using funds brought in from abroad.

The mere act of purchasing a home with funds brought from overseas is not the issue; rather, the investigations aim to determine whether those funds were illegally brought into the country or used for speculative purposes in violation of the law...〈중략,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22면에서 이어짐〉

"광명시가족센터는 '가족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욕구조사, 가족 포럼, 프로그램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와 욕구가 다양해진 만큼 하나의 기준으로 가족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생애주기,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하고,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변화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광명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애주기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과 통·번역 지원부터 부모교육, 가족관계 프로그램, 자녀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니세프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다문화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미래설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자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필요를 살피고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통합프로그램으로 다문화.비다문화 위드하모니 합창단, 다문화.비다문화 한마음가족태권도, 그리니가족봉사단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족센터협회장을 맡고 계신데 현안이 있다면?

"경기도가족센터협회에서는 경기도 가족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가족서비스 수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센터 확충과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체계의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사업을 개발하고, 가족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가족센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배우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 가까이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하는 든든한 가족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하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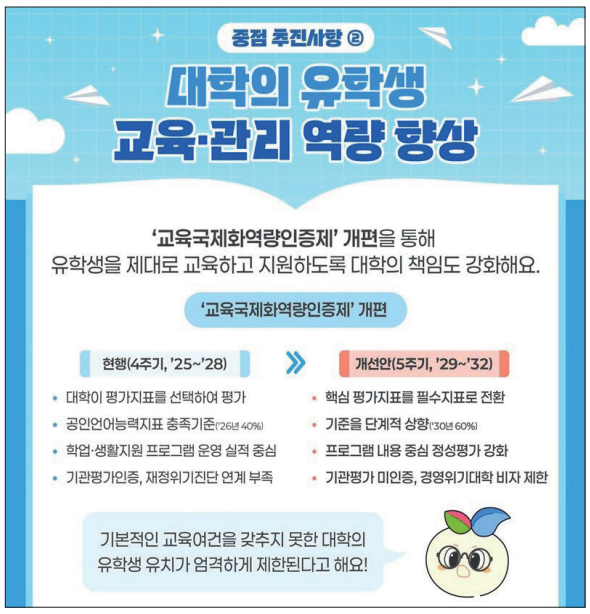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보호
6개월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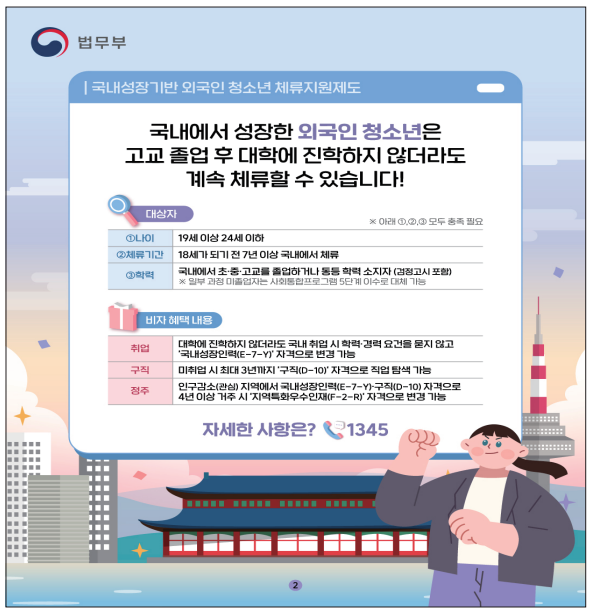

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교육부


2026년 유학생
규모 약 30만 명!
30만 명이라는 기존 정책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며,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질적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의 질 향상
우수인재 양성


법무부
|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성장인력 (E-7-Y)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업
구직
정주


중점 추진사항 ①
학력검증 및
유학원 관리 강화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학력검증과 유학원 관리 강화로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요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 배포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 관리 강화
외국학위 검증절차 안내, 대학 대상 자문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 향상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 확대
원서접수 · 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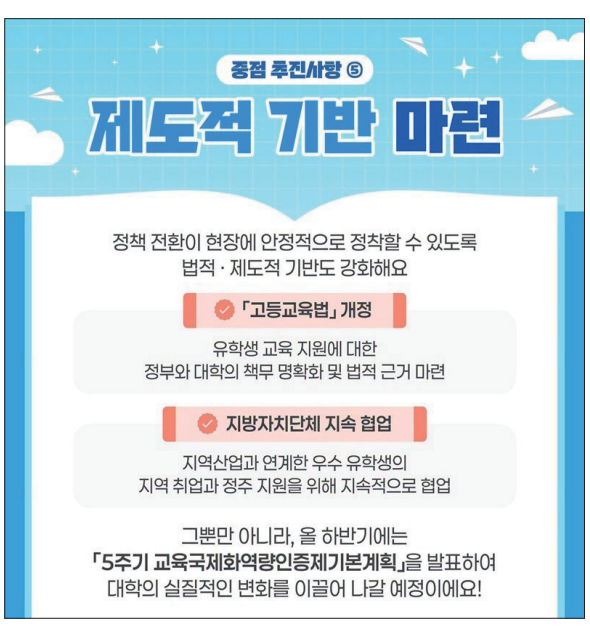

중점 추진사항 ②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향상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해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해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현행(4주기, '25~'28)
대학이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평가
공인언어능력지표 충족기준('26년 40%)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중심
기관평가인증, 재정위기진단 연계 부족
개선안(5주기, '29~'32)
핵심 평가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
기준을 단계적 상향('30년 60%)
프로그램 내용 중심 정성평가 강화
기관평가 미인증, 경영위기대학 비자 제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해요!


법무부
|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아래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나이 19세 이상 24세 이하
②체류기간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학력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 소지자 (검정고시 포함)
※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
비자 혜택 내용
취업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 시 학력·경력 요건을 묻지 않고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 가능
구직 미취업 시 최대 3년까지 '구직(D-10)' 자격으로 직업 탐색 가능
정주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국내성장인력(E-7-Y)-구직(D-10)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1345


학업부터
진로 설계까지 지원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교류프로그램 확충
대학,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확충
상담 연계
24시간 AI 챗봇 상담 및 전문상담사 연계 지원
취업 안내서 제공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맞춤 채용공고 제공기능 추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첨단산업·지역
우수인재 집중지원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해요.
정부초청장학생(GKS)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
정부초청장학생 이공계 선발 비중 확대
연구성과 우수장려금 등 최우수인재 혜택 마련
비자 우대 등 이공계 우수인재 국내 정주여건 개선
학술 소통망 및 정부초청장학생 동문 소통망 확대
2027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하여 해당 학과에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고 해요!


법무부
|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게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과 정주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구직 (D-10-1)
정주 (F-2-R)
취업 (E-7-Y)
※ 자세한 사항은 ☎1345 문의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중점 추진사항 ⑤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요
「고등교육법」 개정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 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지속 협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그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에요!


유학생 인재양성을 통해
K-교육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하는 행복파트너

광명시가족센터, 제11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가 지난 7일 '제11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통합부문「상생협력·포용사회 조성」부문에 선정돼 수상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갈등 해소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광명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남은정 광명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다양한 가족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센터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족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상생과 포용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명시는 10월 15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한다.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다문화가족 등 시민은 본인인증 후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며 알림톡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등기우편 수령인 부재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자진납부 감경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로 부과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고지 누락을 방지한다.

광명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우편요금을 40% 이상 절감하고 종이고지서 발행량 또한 연간 23만 매에서 약 9만 2천 매로 약 60%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엄인봉 차량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 방식을 개선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광명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맛있는 요리교실' 이론과 실습 병행



광명시가족센터는 최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착단계별 패키지 사업-맛있는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식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조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요리교실을 주제로 진행됐다. 총 6회기의 과정 동안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와 간장의 종류 및 유래, 추석 등 고유 명절의 의미, 다채로운 김치의 종류와 특징 등 한국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는 이론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문화를 친숙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일상 가정식부터 제철 음식까지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에 참여하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마지막 6회기에는 그동안 함께 요리하며 쌓은 정을 돈독히 다지는 특별한 마무리 시간이 마련됐다. 향긋한 '티블렌딩(Tea Blending)' 클래스를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차를 우려 마시며 함께 음미해보는 힐링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타국에서의 낯선 문화, 국제결혼에 대한 어려움,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 등 이국땅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진솔한 소회를 차와 함께 나누며 서로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아미나시티씨는 "평소 자주 접하던 음식과 장류에 담긴 뜻을 배우고 나니 한국 사회가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의 배경까지 곁들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어 기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차를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얻은 시간은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시가족센터 남은정 센터장은 "음식은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식문화 이해를 돕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부터 안정기까지 정착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2-6265-1360

이지은 기자



베트남 이주여성의 헌신과 노력 기억해요

이천시가족센터, 다울공동체와 함께 베트남여성의날 행사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다울공동체와 함께 '베트남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10월 20일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5명의 베트남 이주여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사말과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이 이름과 고향, 한국 생활 기간, 행사 소감 등을 이야기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를 하며 가까워진 참석자들은 꽃다발 전달식을 가졌다.

2부에서는 베트남 전통춤 축하공연과 장미화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접 만든 화관을 쓰고 케이크와 과일, 차 등 다과를 함께 나누는 티타임을 가졌다. 이어 베트남어로 진행된 퀴즈 행사에서는 정답을 맞힌 참여자에게 선물이 전달됐다. 전체 기념사진 촬영과 마무리 인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한희영 이천시가족센터 팀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베트남 여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오늘 행사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준비를 담당한 베트남 대표 강윤서 씨는 "베트남 여성의 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이천시가족센터에 감사한다"며, "센터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베트남 여성들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이 행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지은 기자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밤' 개최

이천시는 오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중리동 남천공원과 남천상가 일원에서 「2026 이천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밤」 행사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이번 행사는 「2026 이천시 상권활성화 페스타」의 첫 번째 행사로, '남천의 밤, 할로윈으로 맛있어지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핼러윈 주제의 공연과 체험을 상가 이용 혜택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남천공원 내 야외무대에서는 오후 4시 핼러윈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케이팝 댄스공연과 이천문화재단 공연팀의 음악공연이 이어진다. 오후 5시 30분에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오싹분장 뽐내기 대회」가 열리며, 오후 6시부터는 핼러윈 영화(몬스터호텔4)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극장이 운영된다. 「오싹분장 뽐내기 대회」는 핼러윈 분장을 한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캐릭터 소개와 런웨이, 포즈·퍼포먼스를 통해 개성을 선보이며, 입상자에게는 시상 상품을,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참가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전자우편(sogmu@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되며, 행사 당일 현장 운영부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핼러윈 사진 명소(포토존)와 의상 체험이 마련되며, 남천상가 점포 이용객을 위한 영수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팝콘 교환권을 받을 수 있으며, 2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는 타로 체험과 팝콘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ореи на "1 ночь и 2 дн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о цене около 100 000 вон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дел с 8 октября запускает пилот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на основе 11 пилотных мод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поясов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ию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дел разработало "пилотную мод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яса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приток посетителей в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и удовлетворить растущий спрос на длите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связывая различ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более широких регионах, а не ограничиваяс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районами городов и уездов.

По каждой из 11 пилотных моделей пояса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предлагаются групповые туры по 11 маршрутам на 1 ночь и 2 дня в Кёнги, Канвон, Чхунбук, Чхуннам, Чонбук, Чоннам-Кванджу, Кёнбук, Кёнам, Чеджу, а также по Восточно-Западному маршруту (Чхуннам, Кёнбук). Цены установлены на уровне около 100 000 вон, чтобы снизить финансовую нагрузку.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испытать оздоровление в лесах исцеления и природных курортах, насладиться изысканной кухней в ресторанах на фермах, у мастеров кулинарии и в передвижных пивоварнях, а также остановиться в деревнях для отдыха с сельским опыто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посетить мест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могут испыт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илот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й работы продуктов и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10 продуктов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одукта Чеджу)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ся с отправлением из Сеула, а дни отправления будут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средах и субботах (дважды в неделю)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ивлечения клиентов.

Продукт Чеджу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бор и отправление из аэропорта Чеджу. Расписание и цены по каждому продукту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на различных каналах продаж, таких как Naver Store, Web Tour, Chamjoeun Travel, Norang Pungseon, Kyowon Tour, и забронировать через эти каналы.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найти на портал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Welchon" (www.welchon.com).

Тем времен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дел с марта по но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ежемесячно проводит "Неделю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вторая неделя каждого месяца) и постоянно продвигает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чтобы граждане могли оставаться и наслаждаться им, используя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ки, такие как Rural Tour Pass и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Rural Creative Tour. Осенью,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Неделя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до одного месяца.

Чон Хан Ён, директор Бюро сельск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сельских дел, заявил: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изобилую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такие как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да, еда и впечатления.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пилот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на основе пояса сельского туризма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граждан лич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статься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тить очарование региона".

파파야스토리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9월 29일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꿈 굽는 베이커리' 사업의 일환으로 빵지순례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빵지순례는 제빵기능사자격증 취득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교육생들이 실제 베이커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제빵 제품과 매장 운영 모습을 살펴보고, 제빵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여러 베이커리를 방문해 매장별로 판매되는 다양한 빵과 디저트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제품의 모양과 진열 방식, 매장 분위기 등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을 시식하며 빵의 맛과 식감 등을 비교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제빵 기술과 실제 판매 제품을 연계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빵지순례에서는 현재 제빵기능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빵사와의 만남을 통해 실제 업무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며 현장 경험과 조언을 통해 제빵 분야의 직무를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 이후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빵지순례가 교육생들이 제빵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실제 제품과 연결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체험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꿈 굽는 베이커리'는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제빵 교육과 함께 현장견학, 시식회,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 해군2함대 군인가족 '양계농장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9일, 해군 제2함대 군인 16가족을 대상으로 양계농장체험 '꼬꼬의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군 제2함대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대와 센터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군인가족에게 색다른 여가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이날 참여가족들은 천안 아빠사랑팜에서 채란체험을 비롯해 계란 피자·요리 만들기, 닭의 생태와 사육환경을 알아보는 교육 등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양계농장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계란을 활용한 요리까지 함께 만들며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장의 일상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됐다.

한 참여자는 "평택시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매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군인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군 제2함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인가족의 행복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군인가족의 복지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다가ON 건강ON 요가'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한 달간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가ON 건강ON 요가 season2' 프로그램을 총 9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동작과 자세를 익힌 후 반복적인 연습과 응용 활동을 통해 몸의 균형과 움직임에 집중하며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꼈던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는 등 조금씩 성장했다. 특히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동작을 조절하고 자세와 균형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직접 확인하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자세를 잡는 것이 어려웠는데 연습하다 보니 동작이 된다",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동작을 이번에는 할 수 있어 뿌듯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꾸준한 참여를 통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참여자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작은 변화와 성취를 경험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건강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От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до источника средств»... Сделки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ся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외국인 부동산거래 조사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проверки источников средств 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сделках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такой как жилье или земля в Корее, будут ужесточен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ледует уделять случаям, когда недвижимость приобретае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привезенные из-за границы, или когд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арендный бизнес,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татусу пребы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объявило, что с июня 2025 года по июль 2026 года оно отбирает и расследует 840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совершенных иностранцами, среди сделок с жильем, коммерческими помещениями и земл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чалось в августе 2026 года и продлится до дека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опублик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Подробная проверка источников средств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В ходе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будет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чем раньше, проверяться, откуда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ли средства для покупки недвижим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пересмотренным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ет проверять, также был расшире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сделки расследую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аких данных, как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от продажи акций, облигаций, криптовалют ▲деньги,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у зарубеж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тип визы) иностранца, купившего недвижимость. Применение новых критериев привело к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объектов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 605 случа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 840 случаев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веря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т ли заявленные иностранцами средства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фактическим источникам средств, а также расследует случаи незаконного ввоза средств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из-за границы. Кроме тог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ому, занимается ли иностранец арендным бизнесом, который не разрешен ег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Если вы купили дом в зон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и с землей,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на фактическое проживание

Иностранцы, купившие жилье в зон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и с землей, также должны учитывать обязанность фактически проживать в этом жиль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совместно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таким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ула,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ря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т в жилье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у с землей.

Есл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о несоблюд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и фактического проживания, городские, уездные или районные власти, где находится жилье, могут выдать приказ об исполнении. Несоблюдение этого приказа может повлечь за собой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а з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исполнение, а в случае повторных нарушений разрешение на сделку с землей может быть аннулирован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проводятся с 2022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планов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совершенных иностранцами, с 2022 г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покупали очень дорогое жилье или несколько домов на средства, привезенные из-за границы.

Просто покупка жилья на средства, привезенные из-за границы, сама по себе не является проблемой. Однако проверяется, были ли эти средства незаконно ввезены в страну из-за границы ил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ли они для спекуляций в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иностранцы, желающие приобрести недвижимость в Корее, должны подгото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чтобы четко подтвердить источник средств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а также убедиться, что их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позволяет им занимать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акой как арендный бизнес. В частности, при покупке жилья в зон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и с землей необходим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рить условия разрешения, включая обязанность фактического проживания.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外国居民也能以10万韩元左右享受“2天1夜”乡村旅行 외국인주민도 즐거운 '1박 2일' 농촌 여행

韩国农林畜产食品部自10月8日起，将试点运营基于全国11个广域农村旅游带示范模型的“特色旅游产品”。

今年7月，农食部为增加农村旅游游客流入并应对不断增长的停留型旅游需求，开发了不限于市、郡行政区划、将更广泛地区的多样农村旅游资源联动起来的广域级“农村旅游带示范模型”。

这是以农村旅游带11个示范模型为基础的团体旅游产品，分别覆盖京畿、江原、忠北、忠南、全北、全南光州、庆北、庆南、济州、东西徒步线路(忠南、庆北)共11条2天1夜路线，价格定在10万韩元出头，减轻了游客负担。

游客可以按地区体验疗愈森林、自然休养林等健康养生项目，或在农家美食店、食品名人、流动酿酒厂等地享受美食，同时在乡村体验休养村住宿并参与各种体验项目，还能参观当地旅游景点，将乡村地区的多样旅游资源融入同一旅游产品中。 在试运营初期，为确保产品运营稳定并提高使用率，除济州产品外，将另外10个产品作为从首尔出发的产品运营，并计划将出发日集中安排在每周三和周六，每周两次，以提高游客招募效率。

济州商品将在济州机场集合并移动。各产品的行程和价格可在Naver Store、Webtour、非常好的旅行(참좋은여행)、黄色气球旅行(노랑풍선)、教员旅游(교원투어) 等多个销售渠道查询，并可通过这些渠道进行预订。详细信息可在乡村旅游门户网站“웰촌”(www.welchon.com)查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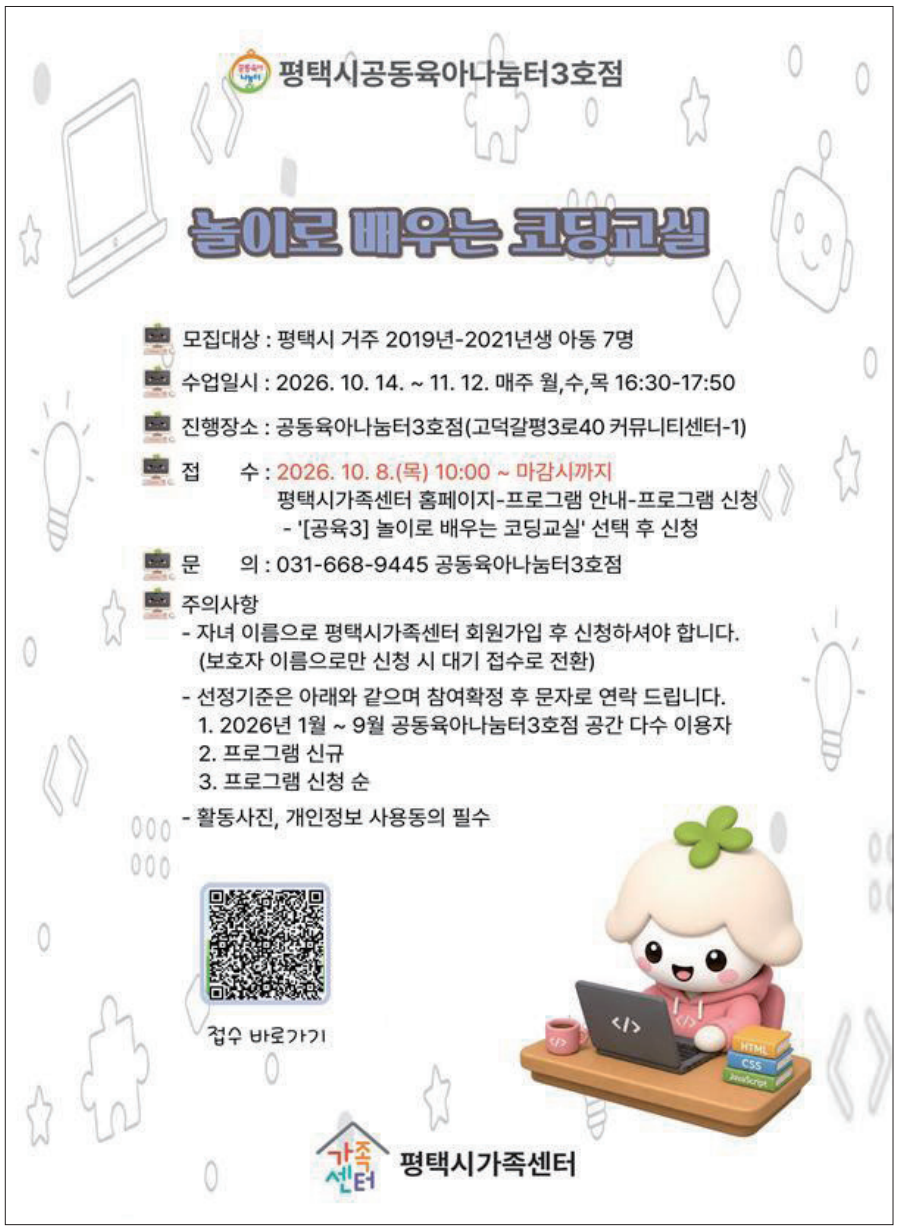
另一方面，农食部自今年3月至11月每月第二周设立“乡村旅游周”，并通过乡村旅游通行证、乡村创意旅游支援项目等多项政策，持续推动乡村旅游发展，让国民能够停留并享受乡村生活。

10月至11月的秋季旅游季，“乡村旅游周”活动将扩大为一个月。韩国农林畜产食品部农村政策局局长全汉英表示：“农村各地区拥有独特的自然风光、美食和体验等丰富的魅力旅游资源。”他还表示：“希望通过此次以农村旅游带为基础的特色旅游产品试运营，让国民能够亲身体验农村地区多样的旅游资源，并有机会在农村停留，充分感受当地的魅力。”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할로윈 초콜릿 체험
참여자 모집
비용 무료!
신청기간: 2026. 10. 7.(수)~20.(화)
일시 2026. 10. 22.(목) 10~12시 - A팀
2026. 10. 23.(금) 10~12시 - B팀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
(안중읍 서동대로 1557)
대상 다문화, 비다문화 지역주민(성인)
내용 생과일 초콜릿 & 할로윈 초콜릿 만들기
신청 센터 홈페이지 신청/1가족 1명 가능
문의 031-660-7472 통합지원팀
A팀
B팀
* 선착순 모집 X, 사업 취지상 다문화, 비다문화 비율 고려함, A,B 중 하루 선택
* 문화소통 프로그램 4회 이상 참여자, 직전 취소 이력자는 후순위 선정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놀이로 배우는 코딩교실
모집대상 : 평택시 거주 2019년-2021년생 아동 7명
수업일시 : 2026. 10. 14. ~ 11. 12. 매주 월,수,목 16:30-17:50
진행장소 : 공동육아나눔터3호점(고덕갈평3로40 커뮤니티센터-1)
접 수 : 2026. 10. 8.(목) 10:00 ~ 마감시까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 '[공육3] 놀이로 배우는 코딩교실' 선택 후 신청
문 의 : 031-668-9445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주의사항
- 자녀 이름으로 평택시가족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이름으로만 신청 시 대기 접수로 전환)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확정 후 문자로 연락 드립니다.
1. 2026년 1월 ~ 9월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공간 다수 이용자
2. 프로그램 신규
3. 프로그램 신청 순
- 활동사진, 개인정보 사용동의 필수
접수 바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다가ON 경제ON
우리 가족을 위한
똑똑한 금융생활
결혼이민자를 위한 우리 가족 똑똑한 돈 관리 비법 전수!!
모집기간 2026. 10. 06.(화) ~ 인원마감시까지
모집대상 결혼이민자 12명
진행장소 다가온(평택2로 125) 1층 프로그램실
일 정 1회기 2026. 10. 22.(목) 10:00~12:00
2회기 2026. 10. 29.(목) 10:00~12:00
내 용 1회기 | 금융을 알아야 진짜 부자다
2회기 | 우리 아이 글로벌 금융 리더로 키우기
- 바자회로 배우는 나눔의 금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또는
QR 코드 스캔 후 신청
문 의 다가온 031-692-2461
신청하기
신청 후 프로그램 참여 확정 문자 발송
2회기 모두 참석 가능 하신 분 신청해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족!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FAMILY CENTER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연계 프로그램
역사탐험대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며
시대별 역사 속으로 탐험을 떠나보아요!
운영기간 2026년 10월 22일 ~ 11월 26일
매주 목요일 16:00 ~ 17:20 총 6회
모집대상 평택시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7명
(프로그램 신규 우선 선정)
신청기간 2026년 10월 12일 ~ 10월 15일 10:00 ~ 18:00
10월 16일 선정 및 대기 문자 발송 예정
진행장소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동명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필수
※ 아동 외 다른 ID로 신청 시
대기신청으로 접수됩니다.
*가족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동사진 사용 동의 필수
문의 031-611-0308
신청
바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직접 요리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는 평택 꼬마 셰프'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식재료 탐색하고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2020~2023년생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감톡톡 꼬마 셰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식재료의 색과 모양을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보며 촉감과 냄새를 경험한 뒤, 보호자와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어보며 요리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렵거나 편식하기 쉬운 채소를 직접 만지고 요리해보며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친숙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완성된 음식을 함께 맛보며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건강한 식재료와 식습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요리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보호자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요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평소 잘 먹지 않던 채소도 직접 만드니 관심을 갖는 모습이 좋았다"며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식재료를 탐색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며 음식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가족 간 사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가족 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청소년기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성교육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3일, 센터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11명을 대상으로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청소년기 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가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과 성교육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과 부모의 역할을 비롯해 신체 변화, 성적 자기 보호, 성적 경계의 중요성 등을 배웠다. 또한 딥페이크와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을 함께 배웠다.

특히 자녀와 성에 관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의 태도와 대화 방법을 살펴보며, 청소년기 자녀의 질문과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자녀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교육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아버지역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춘 교육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아트' 상상력 쑥쑥!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8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6~7세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융합 문화예술 교육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아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배움교실과 연계해 컴퓨터 없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라이트아트와 그림책 아트로 구성해 빛과 공간을 탐색하고, 그림책 속 이야기와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빛의 특성을 이해하고 빛 조각 만들기',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와 패턴이 담긴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빛과 공간, 구조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또한 그림책을 함께 감상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고 이야기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며 창작활동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몰랐던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과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며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이들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도전해요!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바리스타1급 자격증반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9월 28일 안중바리스타커피학원에서 결혼이민자 17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1급자격증반'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바리스타 2급 과정에서 익힌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커피 지식과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 취득을 통해 향후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은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커피 이론을 비롯해 바리스타 1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기술을 배우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습득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확한 추출과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2급 과정을 배우면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 1급에도 도전하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쌓아 실제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기존에 배운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는 참여자들의 열정이 의미 있다"며 "참여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춰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습득한 기술을 실제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한국어교실' 운영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학습과 안정적인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어 사용 경험과 학습 속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참여자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업은 읽기·쓰기·듣기·말하기를 중심으로 어휘와 문장 표현을 익히고,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반복 학습과 개별 지도를 병행해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아는 단어와 표현이 많아졌다"며 "학교와 일상생활에서도 배운 내용을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한국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또래 및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각자의 수준과 학습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눠요"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한 달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자조모임을 운영했다. 현재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취미를 바탕으로 구성된 뜨개질, 베트남 전통무용, 뷰티 등 총 3개 모임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며 취미와 역량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구성원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자가 직접 활동을 선택하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

9월에는 각 모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뜨개질 모임에서는 추석을 맞아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주제로 한복 수세미를 만들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베트남 전통무용 모임은 베트남 전통무용을 함께 연습하며 동작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뷰티 모임에서는 네일아트를 직접 연습하고 서로의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를 함께 배우고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직접 결과물을 완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구성원 간 친밀감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구성원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조모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